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게 듣는다 _ 연극

현장예술인이 수평적 구조로 지원 및 예술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culture 'art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흔들리는 기초예술의 근본정신을 재정립하고,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여 사회의 기본가치로서의 예술을 견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연극분야에서는 연극현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유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현장연극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원회의 구축을 통해 본위원회는 기초예술의 가치를 회복하는 정책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심재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연극
- (사)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98-00)
- 한국연극연출가협회 회장 (03-현재)
- 기초예술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 (04-현재)
-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04-현재)
- 연출가, 극단 전방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흔들리는 기초예술의 근본정신을 재정립하고,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여 사회의 기본가치로서의 예술을 견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현 기초예술의 실태조사와 예술인으로서의 사회적 개념을 재정립하여 국내 예술 환경 구조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연극분야에서는 연극현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유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현장연극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원회의 구축을 통해 본위원회는 기초예술의 가치를 회복하는 정책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연극의 자생력과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구축함으로써 하향평준화 되어있는 현재의 지원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극발전과 지속성을 대도시를 주변으로 한 지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 및 문화소외지역으로 확산시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균등한 문화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내연극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 지원정책에 대한 예술인들의 시각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한다. 이는 현재 연극계에 팽배해 있는 기존의 지원제도에 대해 낭비적 요소로 폄하하는 반응을 인지하고, 심의제도에 대한 만성적 불신을 해소하여 심사기준을 새로이 확립하고자 함에 있다. 먼저 대토론회를 통한 연극인들의 불신요소를 점검하고, 현장연극인을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축한다. 소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운영하여 지원정책수립, 국내연극의 방향성, 국제교류의 문제점 및 나아가 갈 방향 설정, 지역연극의 발전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각각의 소위원회는 연구개발에 목표를 두어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을 토론하고 이는 본위원회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지원정책수립에 관하여는 지원범위에 대한 대상을 정확히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단체 또는 개인이 지원을 하도록 하여 지원범위의 모호함을 명백히 한다. 이로써 한정된 지원금이 합당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각 지원 분야에 따라 어떤 공연물 또는 행사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

을 작성하여 등급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재능을 가진 신진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액다건의 지원책을 활성화하여 그들에게 현장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소액다건으로 지원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심사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완성도 있는 공연물 제작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아끼지 않는다.

이에 대한 실천적 방법으로 심사위원 선정의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단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 기준을 명시하여 매뉴얼화 하고, 각 심사위원의 덕목을 확립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은 심사기간 중 본인이 속해 있거나 본인이 단체장을 맡은 단체의 지원신청 및 작품참가가 불가하며, 심사과정 중 비밀유지 등의 명예선언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매뉴얼에 명시한다.

국내연극의 방향성 확립을 위해 연극 이외 타 장르와의 긴밀한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장르간 통합연극 지원을 강화하여 연극, 무용, 미술, 문학 간의 탈장르 공연을 통한 각 예술의 발전을 모색할 기회를 권유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극계 화합을 도모하여 개인 및 단체의 이익을 떠나 자생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겸비한 한국연극의 기반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대화 창구를 마련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연극 환경을 조성한다.

국제교류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해외 축제에서의 초청이나, 출판허가 등에 의해 해외공연의 기회가 주어졌던 작품에 대해 항공료 정도의 지원만 해오던 기존의 지원제도를 탈피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기획안을 심사하여 업그레이드된 작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러한 국제적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의 개발로 아직 해외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의 자질이 보이는 작품을 선별하여 단계별 지원제도를 확립한다. 1차 선정을 통한 공연 전 소액지원을 시작으로 2차 선정을 통한 공연 후 집중지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다각적 지원을 통해 국내의 자생력 있는 연극이 충분한 지원정책을 발판으로 국제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공연물을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국내공연의 다양성을 해외에 소개하고, 예술가 개인 또는 각 단체별로 해외예술가들과의 개별적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안을 검토하여 적절한 지원을 위한 정책을 확립한다. 이는 다양한 문화교류의 시발점으로 개인 및 단체의 특성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힘이 될 것이다.

지역연극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관계적으로 이어오던 전국연극제의 순번식 입상분위기를 개선하고 보다 창의적인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한다. 기존의 우호적인 친목도모차원의 행사를 발전시켜 보다 창의적인 예술혼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연극인들의 예술적 가치를 경쟁적으로 기증해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킨다. 이에 순수창작극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 향토적인 창작극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연극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예술인을 자체적으로 교육, 육성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도록 한다. 연출 및 무대스텝의 부재로 예술적 가치의 선택에 난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난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예술인들만을 위한 인력지원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대도시의 예술인들과 교류하며 지역만의 인력을 교육시키고 육성시켜 그들만의 특색 있는 예술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마다 그 특색을 살려 작품 및 행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연구개발에 힘쓸 것이다. 이를 통해 지원소외지역 및 단체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다양한 문화발전을 위해 가능성 있는 지역 및 단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신청을 유도하여 문화의 균등한 발전을 이루도록 한다.

예술위원회 연극분야에서는 이러한 사업으로 현장예술인이 수평적 구조로 지원정책 및 예술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문화부 및 타 지원주체와의 정책적인 네트워크로 실질적인 정책수립에 힘쓸 것이다. 이에 현장연극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하는 바이다.